

새천년의 낙농업 방향



윤 효 직
한국유가공협회장

낙농에 있어서 가장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 착유·청소·사료급여이므로 이같은 부분의 노동절감을 위한 기술혁명이 수반되지 않는 한 비용절감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우가 지닌 산유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양관리기술의 고도화를 실현해야 하며 젖소의 자질향상을 위한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 느덧 기묘년의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 도전의 새천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90년대 우리나라 낙농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외적으로는 세계 제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을 주도해오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라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이행함으로써 유제품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자유화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수입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나라 낙농업은 이제 국제적인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길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낙농업과 유가공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시유의 꾸준한 소비증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유의 소비증가는 1996년 이후 유제품의 수입자유화에 따라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 낙농업 및 유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산유제품의 철저한 "차별화"와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것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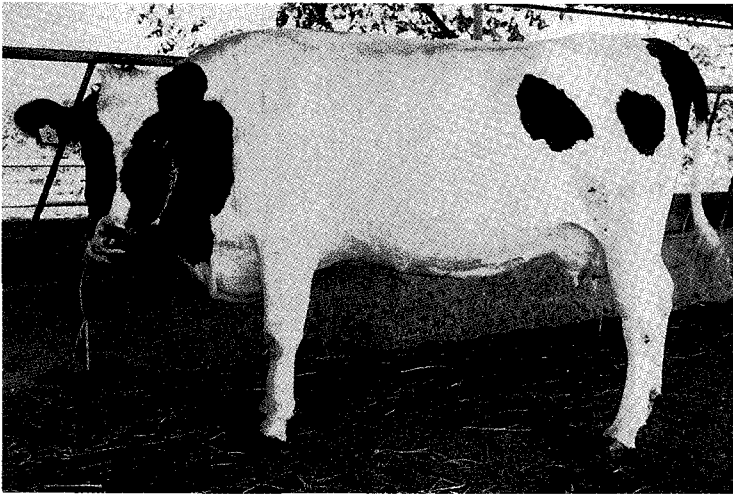
또한 이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견지해 오던 "공급관리형체제"에서 탈피하여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시장중시형체제"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무한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낙농업과 유가공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시된 전략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기술혁명과 경영혁명 및 유통혁명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지면의 제약상 여기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낙농경영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낙농은 농업 가운데서도 어떤 분야보다 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큰 생산부문이다. 그러므로 기술혁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기술혁명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절약적 기술체계의 확립과 사양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규모확대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다.

낙농에 있어서 가장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 착유·청소·사료급여이므로 이같은



부분의 노동절감을 위한 기술혁명이 수반되지 않는 한 비용절감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우가 지닌 산유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양관리기술의 고도화를 실현해야 하며 젖소의 자질향상을 위한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체계가 확립되어

야 한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경영능력의 향상이다. 경영능력의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규모확대는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비용절감은 기대할 수 없다.

이제 다가오는 2000년대의 국제화시대는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 질 것이므로 우리나라 낙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의 차별화는 물론 비용절감을 위한 과감한 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2-584-3631〉

☺ 알 리 는 말 씀 ☺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육우농가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월간 낙농육우」 또한 회원 여러분의 월간지로서 항상 회원여러분과 동고동락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다음의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투고를 환영합니다 ♥

「월간낙농육우」에서는 언제나 회원여러분의 생생한 삶의 현장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마시고 펜을 드십시오. 우리는 소를 키우는 농민이지 소설가나 시인이 아닙니다.

아무런 격식도 필요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체험담, 미담, 제언, 기술정보, 수필, 시, 콩트 등을 제한없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원고에 대해서는 성심껏 게재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정의 원고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내실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축산회관4층)

한국낙농육우협회 홍보실